

엄마 알레르기, 아기에게 유전된다

알레르기는 어머니에게서 유전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애리조나대학의 약리학교수 매릴린 헬로넨 박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알레르기·천식면역학회 연례회의에서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어머니에게 알레르기증세가 있으면 자녀에게 유전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어머니가 임신중 알레르기발작을 일으켰을 때는 그 위험이 한층 커진다고 밝혔다.

헬로넨 박사는 부모가 알레르기환자인 1백개의 가계(家系)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헬로넨 박사는 이들에 대해서는 알레르기반응을 증가시키는 사이토킨인 인터류킨-4와 알레르기반응을 감소시키는 사이토킨인 인터페론-감마의 분비량을 검사하고 부모와 자식에게 있어서 이 두 사이토킨의 관계가 어떤지를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알레르기반응과 관련된 사이토킨은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헬로넨 박사는 말했다.

헬로넨 박사는 특히 어머니가 임신중 알레르기 증세를 나타낸 경우는 이러한 관계가 더욱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헬로넨 박사는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헬로넨 박사는 이 연구는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임신중 어느 때에 알레르기반응을 일으켜야 태아가 이를 물려받을 위험이 가장 커지는지는 조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헬로넨 박사는 11세의 연령그룹에서도 유전성 알레르기환자가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유전받은 알레르기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헬로넨 박사는 아이들이 알레르기 소질을 갖게 되는 것은 이처럼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어머니 자궁 속의 환경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암은 나쁜 생활습관이 원인

암은 대부분 흡연, 식사, 운동 등 생활습관과 관련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며 이러한 요인들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인 만큼 암은 예방이 가능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미국 하버드대학 암예방센터의 디미트리오스 트리코폴로스 박사는 암 전문지인 <암 원인과 통제>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암의 종류중 3분의 2가 환경적 요인보다는 좋지 않은 식습관, 신체적 활동 부족, 흡연 등 생활방식과 관련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한다고 말했다.

트리코폴로스 박사는 사람들은 전력선이나 발암물질 노출 등 사소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적잖게 신경을 쓰면서도 막상 식습관 같은 중요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지적했다.

트리코폴로스 박사는 "그러한 메시지는 수도 없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암은 치료보다 예방이

더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암은 30%가 흡연, 35%가 비만과 적색육과 다습취 등 좋지않은 식습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며 암의 원인으로서는 2%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장기간의 태양자외선 노출도 생활습관과 관련된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유전적 요인은 10%, 환경적 요인은 2%, 식품오염은 2%에 불과하다고 트리코폴로스 박사는 지적했다.

또, 결장암, 유방암, 폐암, 식도암, 후두암, 전립선암을 예방하려면 지방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고 위암과 췌장암을 막으려면 콩과 곡물류를 많이 먹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트리코폴로스 박사는 또 운동은 유방암, 결장암, 직장암, 신장암과 연관이 있는 비만을 해소시킨다고 지적하고 이외에 암의 원인중 약 3%를 차지하는 과도한 음주량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72**